이안의 Media In Buddha ⑩ 영화 〈다음 소희〉



▶한줄요약
전북특성화고 여학생 '소희'(이시은)가 콜센터에 현장실습 나가 딱 다섯 달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제 사건을 다룬 〈다음 소희〉는 이제 시대의 목탁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영화가 되고 있다.

AI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고객님

1963년 6월 11일 오전 10시 남베트남 사이공 도로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솟았다. 사람 몸에 지펴진 불길이었다. 평생에 걸쳐 30여 개의 사찰을 복원해 온 틱광득 스님이 스스로의 몸에 기름을 붓고 몸을 사른 그 '소신공양'의 뜻을 밝혀온 틱광득 스님이 마침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핀 현장은 사진작가 말콤 브라운의 카메라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다.그러고서야 사람들은 돌아보았다.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 최대이자 최악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베트남 정치에 개입한 서양의 영향이 종교를 통해 불교의 억압이라는 폭력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신공양 앞에서도 극우 정치인들은 '중의 바비큐라니 재미있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은 베트남 불교, 베트남 민중의 자유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

자살을 테러의 수단으로 쓰며 순교로 보는 종교도 있지만, 불교도 이렇게 '대승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살을 옳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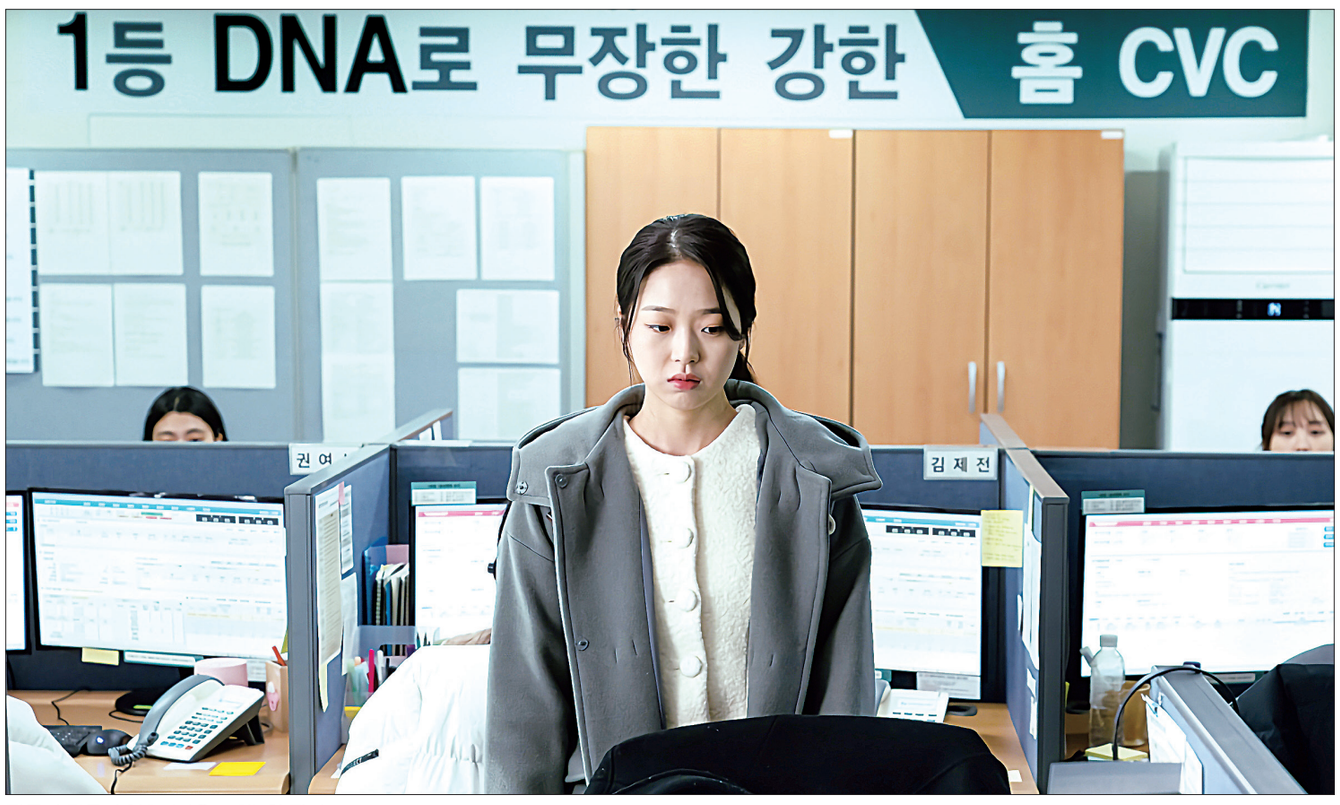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인 자살은 불교에서 여러 계행 중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이다. 어떤 생명도 해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 계에서 말하는 생명에는 자신의 목숨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살 또한 살인과 다르지 않은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은 고통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죽은 이가 생전에 지은 업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살생의 업까지 더해져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 자체는 스스로에게 지은 행위이지만 그 죽음을 누군가 보고 듣고, 수습하고, 애통해하는 동안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업력을 보태게 된다고 한다.

자살은 바른 생각과 판단에서 결론 내려진 행위인 정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의 상실, 바른 견해의 상실로 인한 행위이기에 죽음 이후에는 업으로 과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청소년과 청년(10대~3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10만 명 당 24.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1명보다 2배 이상이 자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업보가 아니라 이미 사회의 업보일 것이다. 내몰리고 내몰린 삶의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폭력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게 비명이 들리게 하려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죽음은 이미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틱광득 스님처럼 대승적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에 대해 우리는 죽은 이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공업이 저지른 죄를 탓할 것인가? 죽음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가?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린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 한 장면.

개봉 첫 주 이후에는 관객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 극장가에서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사회드라마가 제작비 맞먹는 홍보마케팅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다음 소희〉를 보려는 관객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다. 10개 넘은 상영관 갖춘 멀티플렉스들이 오락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에 좋은 시간 스크린 몰아주고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는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띄엄띄엄 상영한다고 생색이나 내는 극장 상황에서 극장을 단체로 빌려 관람하려는 모임,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 혼자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이 내는 입소문은 예사롭지 않다.

전북특성화고 여학생 '소희'(이시은)가 콜센터에 현장실습 나가 딱 다섯 달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제 사건을 다룬 〈다음 소희〉는 이제 시대의 목탁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영화가 되고 있다.

2017년 1월, 전주에서 대기업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름지기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도 제주 생수공장, 여수 요트 업체, 고양시 화훼 농장 등 업종이나 지역 가릴 것 없이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죽어나갔다. 왜? 현장실습 학생들을 교육실습생이 아닌 노동력, 그것도 폭력과 착취로 쥐어짜면 되는 값싸고 부리기 편한데다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안 되는 일꾼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콜센터 실습 여고생 5달 만에 자살
학교, 기업 등 악업 카르텔이 원인
'소희' 죽음, 자살 아닌 사회적 타살
〈다음 소희〉 사회의 공업을 비판해

이런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생명적 파견노동의 책임은 실습생을 받은 현장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 정부기관, 그들에게 악업이 닿는 모든 관계들이 함께 져야 한다. 그 켜켜이 쌓이는 악업, 구조적 문제, 사회적 책임의 결을 하나하나 들추며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영화가 바로 〈다음 소희〉다.

형사 '유진'(배두나)은 열여덟 살 고등학생 '소희'가 현장실습에서 겪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소희'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들은 학생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

현장실습생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실적에 대한 압박 앞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언어로 던져지는 희롱과 폭력 앞에서, 부당한 현장 문제에 대해 "내 얼굴 봐서 참아"라는 학교 선생님 앞에서 소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모든 통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곳에서 점차 자신의 말을 잃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생을 접은 소희의 죽음은 얼핏 흔한 자살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한 순간의 짧은 우연한 연으로 '소희'와 스친 적 있었던 형사 '유진'은 이 자살사건을 흔한 청소년 자살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는다. 유진은 소희가 다녀갔던 곳을 거꾸로 되짚어 가며 소희가 느꼈을 고통, 소희가 받았을 압박, 소희가 맞닥뜨린 외면, 소희가 넘지 못한 권력, 소희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었을 촘촘한 관계망들을 한 겹, 한 겹 들춰낸다.

소희가 보낸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대한 답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뒤집어씌우는 기업의 몰염치, "적당히 하십시다. 그래서요? 이제 교육부 가실랍니까? 그 다음은요"라며 발뺌하고 거리 두는 교육청의 무책임, "개인의 성격 탓"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경찰의 무관심 뒤에 콜센터와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해보았던 적이 있는 우리 모두를 세운다.

현장이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본 적도 없는 학교 선생님은 하청 업체인 콜센터도 명색은 대기업이라며 소희가 그 학교 출신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여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학생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신의 실적과 학교의 실적을 위해서. 실습나간 현장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실패자라며 '빨간색 조끼' 라는 낙인을 씌우는데 어떤 학생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상품에 대한 어떤 불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적, 그러다 터지는 어떤 언어폭력 앞에서도 개인을 내비치지 말라는 족쇄가 된다. 우리가 흔히 '친절' 이라고 하는 콜센터 직원의 응대는 기업이 가진 결함을 들키지도 인정하지도 말라는 주문이다. 그런 친절이 막아내지 못하는 불만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적 평가는 사회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친절을 지켰다는 자부심이나 고객을 행복하게 했다는 만족감이나 기업의 이익을 지켰다는 성취감 따위는 느낄 여지도 없이 욕설 앞에서 자존감을 버리면 주어지는 몇 푼어치 인센티브 앞에서 감정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어떤 근로계약에도 '을'에게 감정에 대해 조건을 걸지 않건만 이 사회에서 '감정노동' 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된 것은 기괴하다. 근로계약에서 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에는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감정'이 근로계약의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별도로 그에 합당한 가치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식당에 가서는 '욕쟁이 할머니'의 욕설이 구수하고 맛나다며 단골 삼는 사람들이 AI도 아닌 사람을 욕받이로 삼기 일쑤다. 이 사회가 이미 근로계약을 통한 노동자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습을 나온 학생이든 '현장' 이라는 일터에 서게 되면 협의된 노동 이외에 모든 인격과 감정까지 기업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200만 명이 일하는 약 4조 원대 규모의 서비스 산업이 된 콜센터는 화장실에 가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모든 통화내역은 감청 심사를 받아야 하고, 노동 시간 내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고, 어떤 무리한 질문이나 요구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000입니다.' 로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하는 콜센터는 오늘날 가장 가혹한 노동 현장 가운데 하나다.

"학생이 일하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탓하는 사람이 없다"고 유진이 되뇌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소희'가 아니라 〈다음 소희〉가 된 것이다. 영화에서 사건을 짚을수록 유진은 무력감을 느끼지만, 이 무력함 앞으로 대중을 불러 모은 정주리 감독은 소희의 죽음을 개인이 스스로에게 저지른 살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목탁으로 울리도록 한다.

감독 자신이 영화 안에서 가장 아끼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라는 대사에서 이미 소희는 자신의 희생 '다음에 올 소희'들을 위한 존중을 당부하고 있다. 소희의 죽음이 헛된 희생이 아니게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소희, 다음 소희, 그 다음 소희들 모두가 우리의 공업이기 때문이다.

〈영화평론가〉



